

## 대학의 현실과 도서관



글 | 이 상 복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sblee@daejin.ac.kr

오늘날 한국 대학은 과거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격동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연구 중심의 대규모 대학은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대학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대규모 대학은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중 일부 대학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들은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규모 대학은 국제적인 역량을 확보하기보다는 당장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구조개혁 패러다임에 적응해야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가까운 미래에 닥칠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하여 대학 총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유사중복학과(전공)를 통·폐합 하거나 정원을 감축하여 경쟁력 있는 학과(전공)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구조 개혁 실적을 연계하거나 재정지원제한대학 포물리 지표를 통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규모 대학은 생존을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구조개혁과 포물리지표개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입학경쟁력과 재학생 충원율이 낮은 지방대학에서는 가혹할 만큼 그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 대학은 그 규모와 수준에 관계없이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 또는 인하하게 됨으로써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예산을 학생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방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언급한 국내 대학이 처해있는 현실, 특히 재정적 현실은 대학도서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예산 대비 자료 구입비 비율은 2009년 1.1%에서 2011년 1.0%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정압박이 가속화되면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며 특히 소규모 대학의 경우 0.5% 미만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예산은 정보량의 증가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 총예산대비 자료구입비 비율의 하락은 대

학도서관의 최대의 위기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정부 및 대학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으로는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의 각종 대학평가지표에 일정부분 자료구입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제에서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를 최소 5만원으로 기준 값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정부재정지

원사업(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등)에서 반영하고 있는 교육비 환원율(등록금수입대비 총 교육비)에서 총 교육비 중 일정비율의 자료구입비를 책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정부재정지원제한 포물리지표에 일정부분의 자료구입비

## 이처럼 오늘날 한국 대학은 그 규모와 수준에 관계없이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를 반영할 수 있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자료구입 예산이 적은 중·소규모 대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차원의 학술정보 교류협력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KERIS대학라이선스사업'이나 '외국학술지지원센터지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해외 학술정보공동활용과 대학예산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㉞

###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제4회 해외도서관 연수 실시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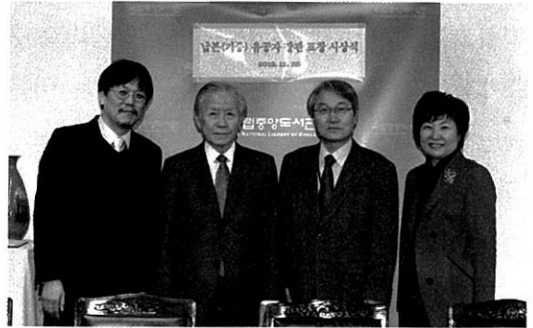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회장 남윤희)는 2012년 12월 20일(목)부터 23일(일)까지 제4회 해외도서관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해외연수는 17개교 21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대만대학교 도서관, 대만국가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만국가도서관에서는 국가도서관 관장의 주최 하에 환영행사가 있었고, 별도로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 대만 도서관 관계자와 함께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토론이 있었다.

기사제공 :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 국립중앙도서관, '2012년 납본·기증 유공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표창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심장섭)은 2012년 12월 20일(목) 모범적 납본 출판사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표창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이번 표창은 「도서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한 해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에 출판자료를 빠짐 없이 신속하게 납본하고, ISBN(국제표준도서번호)과 CIP(출판시도서목록)제도에 적극 참여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민음사(대표 박명호)와 푸른사상사(대표 한봉숙)가 납본부문을, 송상용(한림대) 명예교수가 기증부문 수상을 받았다.

기사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 울산중부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울산중부도서관

울산광역시(시장 박명우)는 울산중부도서관(관장

장용태)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였다.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은 2012년 12월 28일(금) 시립도서관 개관 시까지 울산중부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울산중부도서관은 공공·학교·작은도서관 등 지역의 각종 도서관지원 및 협력사업,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의 도서관 자료 수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사제공: 울산광역시

행복한 삶을 위한 감성독서코칭, 학교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독서치료 운영자의 자질과 서비스 강화방안, 아동·청소년·성인 독서치료의 이해와 실제 등 학교도서관 연계 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은 2008년부터 매년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자기계발에 관련된 능력 배양을 위해 독서치료 전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기사제공: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

####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 학교도서관 활성화 전문 연수 '독서치료과정' 개최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관장 이정우)은 1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전문 연수 '독서치료과정'을 개최하였다.

이 연수는 서울지역 초·중·고·특수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및 담당교사, 사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심리와 상담기법,